

보도시점 3.17.(화) 국무회의 종료 시점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편리하고 쉽게 이용한다.

- 중기부,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 -

- 지원사업 신청서류 50% 감축 및 사업계획서 분량 30% 이상 감축
-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부터 시범운영 개시
- 35개 유선 상담 전화번호를 1개(1357)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7일(화)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①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②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 시범 운영 개시

중기부는 현재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두 채널 간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별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월부터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합치고 AI를 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고, 한 번의 통합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AI가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해 주고 대화형 상담을 진행한다.(’26.12)

③ 35개의 유선 상담 전화번호를 1개(“1357”)로 통합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전화번호 1357)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술보증, 공공구매 등 4개의 분야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법무·세무·회계 등 경영애로 해결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통합된 전화번호는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1357’ 하나만으로 상담 목적과 분야에 따라 최적의 지원센터를 자동 연결해 주도록 전화번호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④ 모든 부처가 함께하는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SIMS)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中企·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722개지만, 그 중 중기부 사업 141개(20%)를 제외한 581개(80%) 사업은 과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17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중기부가 추진 중인 신청서류 간소화 등에 17개 부처가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찾아 해마다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라며,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접속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진수웅 (044-204-742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건영 (044-204-7470) |

참고1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방안

◇ (기대효과) 年 137만개 신청기업의 502만개 신청서류, 64만장의 사업계획서 작성이 감소하여 57만 시간 절약*

* 신청서류 1개당 준비 소요시간을 3분으로 가정(발급신청, 작성, 인쇄, 서명, 스캔)
사업계획서 1장당 작성 소요시간을 30분으로 가정

(1) 신청서류 개수 50% 이상 감축(9개 → 4.4개, '25.11 ~ '26.12)

○ (감축방식) ①행정정보연결(자동제출), ②온라인체크, ③폐지, ④사후제출
⇒ ① △30% + ② △10% + ③ △6% + ④ △5% = 총 51% 감축

① 부처협업으로 행정서류 자동제출(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 △30%

*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등과 시스템 연결

② 서명서류는 온라인에서 체크(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렴서약서 등) : △10%

③ 관행적 서류는 과감히 폐지(지원수혜이력, 별도 기업소개서 등) : △6%

④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사후제출(확약서, 창업유지동의서 등) : △5%

< 감축 우수사례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26.2.27 감축결과 반영하여 공고) >

| 종류 | '25. 제출서류 : 7개 | '26. 제출서류 : 1개 |
|--------------|----------------|----------------|
| 행정기관 발급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 행정정보연계(자동 제출) |
| | 창업기업확인서(중기부) | |
| | 대표자 신분증(행안부) | |
| 직접 작성서류 | 창업유지동의서 | 사후제출 |
| | 청렴실천 선언문 | 사후제출 |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온라인 체크 |
| | 사업계획서 | 현행 유지 |

(2) 사업계획서 제한분량 30% 감축

○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 현황) 평균 14장

- ①20p 이상 사업 37개, ②5 ~ 19p 사업 30개, ③5p 미만 사업 20개

○ (감축 대상) 사업계획서 5장 이상 사업 중심 70개 지원사업

① (현재 20p 이상) 37개 사업 모두 '20p 미만'으로 감축

② (현재 5p 이상 20p 미만) 30개 사업 모두 감축, 감축률 자율 수립

③ (현재 5p 미만) 감축 대상은 아니나, 3개 사업(20개 중) 자율적 감축

○ (감축 계획) 평균 '25년 14장 → ~'27년 9.4장(△32.8%, △5.6장)

○ (감축 시기) 올해 공고 예정인 30개 지원사업은 '26년 즉시 감축, '26년 공고가 완료된 40개 지원사업은 '27년부터 감축

(3) AI 기반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지원

○ (개요) 기업이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학습한 기업정보 + 지원사업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사업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 제공

- (데이터학습) 기업정보업종, 업력, 지역, 고용, 재무, 특허 등(Kodata), 지원사업 정보사업목적, 사업계획서 양식, 평가지표 등(기관 자체 정보)

<제조AI 분야 사업계획서 초안 생성 예시(기정원 시범모델)>

| 주요내용 | 목표 수준 | |
|---|-------|------|
| | 현 수준 | 목표수준 |
| 1. 생산라인 자동화 및 통합 관리 - MES/POP/APS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생산계획, 작업지시, 실적, 품질 등 전 공정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 - 설비 자동화 확대 및 작업지시 자동화로 생산 효율성 극대화 | 기초 | 중간1 |
| 2.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경영 - FEMS(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 - 에너지 소비 최적화 및 비용 절감, 탄소배출 관리 등 친환경 경영 실현 | 기초 | 중간1 |
| 3. 품질 및 경쟁력 강화 -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불량률 감소 및 신속한 품질 이슈 대응 - 생산성 향상, 납기 준수, 고객 신뢰도 제고 | 기초 | 중간1 |
| 4. ESG 및 미래 성장 기반 마련 - 친환경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으로 ESG 경영 실현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 확대 | 기초 | 중간1 |

기업명 및 비전·계획·예산 등 키워드 입력 → 사업계획서 초안 생성

참고2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 (개요)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에 있는 지원사업 정보와 증명서 서비스 등을 한 곳으로 모아,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 검색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신청연계가 가능한 통합플랫폼 구축

- 추진경과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민체감 선도과제 선정('22.12월)
 - *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을 위해 모든 지원사업을 한 곳에 집적하여 민간 플랫폼과 연결하고, 쉽고 빠른 원스톱 신청 및 맞춤형 정책 추천 등 구현

- (추진내용)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제공, ② AI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③ 민간 클라우드 구축 및 민간플랫폼 연계
 -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포털인 ‘중소벤처24’와 ‘기업마당’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중요 정책사이트를 통합플랫폼에 하나로 연결**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사업공고 및 사업 신청에 필요한 중소·벤처·여성기업 확인서 등 서류 발급 서비스 제공
 - ** 통합회원·로그인을 통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기부 68개 대민사이트 전부 이용
 - ② 생성형 AI 기반 사업공고·지원사업 맞춤형 검색 서비스 및 신청 서류·절차·제도 안내 등 AI 종합 안내 서비스 제공
 - ③ 초기 구축비용 및 확장 용이성을 감안, 민간클라우드(NHN)에 구축, 네이버·토스 등 민간플랫폼에 API 제공으로 정책 접근성 제고

- (추진일정) 1단계 구축('25) → 2단계('26) → 3단계 고도화('27)
 - * 통합회원·로그인 시범운영('26.5월), AI 서비스 시범운영(9월), 통합플랫폼 정식오픈(12월)

참고3

35개 유선 상담 전화번호 통합 계획

- 35개 유선 연락 창구를 ‘1357’로 일원화(‘27)
 - 상담 목적·분야에 따라 1357에서 분야별 콜센터 등으로 자동 연결
 - 분야별 콜센터 폐지가 아닌, 기존 센터를 유지하면서 수요자 편의 제고
 - 분야별 콜센터 ‘전화번호’는 유예기간(ex. 1년) 부여 후 단계적 폐지
 - * 창경센터, 비즈니스지원단 등 고유기능이 있는 기관·사업은 번호 유지

| As-Is : 7개 기관, 35개 전화번호 | | | | | | |
|--------------------------------|-----------|---------|----------|----------|----------------|------------|
| 통합 콜센터 (1357) | 중소 자금 콜센터 | 소진공 콜센터 | 기술보증 콜센터 | 공공구매 콜센터 | 비즈니스 지원단 (13개) | 창경센터 (17개) |



| 안내멘트 | To-Be : 1개 전화번호 ‘1357’ |
|------|-------------------------------|
|------|-------------------------------|

| | | |
|------|---------|---------|
| ① 목적 | 지원사업 상담 | 경영애로 해결 |
|------|---------|---------|

↓

| | | | | | | | | |
|------|-------|-------|----|-------|-------|-------|-------|-------|
| ② 분야 | 소상 공인 | 중소 자금 | 창업 | 기술 보증 | 공공 구매 | R&D 등 | 중소 기업 | 스타 트업 |
|------|-------|-------|----|-------|-------|-------|-------|-------|

↓

| | | | | | | | | |
|--------|---------|---------|-------|--------|---------|------|----------|-------|
| ③ 자동연결 | 소진공 콜센터 | 중진공 콜센터 | 창경 센터 | 기보 콜센터 | 한유원 콜센터 | 1357 | 비즈니스 지원단 | 창경 센터 |
|--------|---------|---------|-------|--------|---------|------|----------|-------|